

보도시점

2025. 8. 20.(수) 16:00

배포

2025. 8. 20.(수) 14:00

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(MOU) 체결

- 기획재정부와 현대차그룹은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차량 협찬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(MOU) 체결
-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

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현대차그룹 신승규 전무는 8.20.(수), 현대자동차 강남대로사옥에서 오는 10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 협찬에 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.

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회의기간(10.21~10.23) 동안 G80, 아이오닉9, EV9 등 친환경 전기차량과 G90·K9 등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차종을 의전차량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, 美·中 등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.

그간 현대차그룹은 ADB('23) 및 AfDB('18), AIIB('17)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시 차량 협찬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온 바 있다.

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“그간 현대차그룹의 차량 협찬으로 국제행사의 품격을 높이고,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”며, “특히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, 관세문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현대차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밝혔다.

신승규 현대차그룹 전무는 “이번 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는 앞으로 다가올 정상회의와 더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며, “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언급하였다.

마지막으로,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“이번 협약은 민관이 ‘원팀’으로서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한 견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, 향후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오는 10.21~23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AI 등 우리나라 혁신산업 전시 및 포럼,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정상회의 불협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	책임자	팀 장 박해정 (044-287-2621)
	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	담당자	사무관 변유호 (yooho9078@korea.kr)



참고

APEC 재무·구조개혁장관회의 개요

□ (개요) APEC 2025 재무장관회의* 및 구조개혁장관회의**

* (영문명) Finance Ministers' Meeting / (영문 약어) FMM

** (영문명) Structural Reform Ministerial Meeting / (영문 약어) SRMM

□ (기간 및 장소) '25.10.21(화)~23(목) / 인천 영종도(인스파이어리조트 등)

10.20.(월)		10.21.(화)			10.22.(수)	10.23.(목)
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(조정국)	재무 드래프팅	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(대외국)	재무 본회의	구조 드래프팅	재무·구조개혁 합동세션	구조개혁 본회의
			재무 만찬		재무·구조개혁 합동오찬 겸 ABAC* 워킹런치	재무·구조개혁 합동 기자회견
					구조개혁 본회의	
					구조개혁 만찬	

□ (의제)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^{재무}혁신·재정·금융 및 ^{구조}구조개혁 역할

※ (2025 APEC 주제)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: Connect, Innovate, Prosper

- (재무)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및 금융·재정의 역할
- (구조개혁) 역내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

□ (참석) APEC 회원 21개국 재무장관 및 구조개혁장관*, IMF·OECD 등 국제기구, APEC 사무국 등 대표단 약 300여 명 예상

* 4개국은 재무부(한·호·페루·칠레)에서 담당하며 그 외 국가는 산업통상부, 경제개발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(미국은 국무부, 중국은 발개위, 일본은 외교부)

□ (기대성과) 불확실한 대외환경에서 향후 5년간 재무·구조개혁 로드맵 마련 등 아·태지역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에 기여

- 포럼·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우리 산업·문화, 인천시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, 정상회의 범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